

우리가 상상한 미래

10조

김도윤, 박정은, 배선웅, 최준혁



뉴럴 인터페이스 렌즈 (NEURAL INTERFACE LENS)

- 생각으로 조작하는 미래형 렌즈
- 뇌파·시각·청각·근육 신호를 실시간 인식해 '생각 기반 컴퓨팅' 구현
- 뉴럴 인터페이스: 머릿속 이미지로 문서 열기, 코딩, 디자인 가능
- 스마트 공장 증강: 어디서든 360도 가상 오피스, 홀로그램 협업
- AI 트윈: 사용자의 스타일 감정, 언어를 학습한 AI 복제 인간과 동시 작업
- 감성기반 시야 전환: 감정에 따라 배경 자동 전환
- 디바이스의 종말: 클라우드, AI, 뇌파가 통합된 개인 인지 공간

미래형 태양광 나무(SOLAR TREE)

- 나무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 되어 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나무형 발전소
- 뿌리: 인버터, 배터리 내장
- 줄기, 잎: 반투명 태양광 패널
- 다각도 태양광 흡수로 효율 극대화
- 곡면 패널로 빛을 다방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음
- 친환경 상징물로 시민 인식 제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영화

- AI가 스토리·배우·세계를 모두 생성하는 미래형 영화 제작
- 패러다임, '생성 시네마(Generative Cinema)'
- 하이브리드 프로덕션
- 배우 연기만 촬영 → 배경·의상·효과는 AI가 실시간 생성
- 풀 제너레이티브 시네마(2050S)
- 시나리오만으로 영화 전체 자동 생성
- 감독은 "AI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AI 디렉터로 진화
- 인간 눈으로는 실사와 생성물 구분 불가

미래형 반응형 의복 (SMART RESPONSIVE WEAR)

- 신체와 감정에 반응하는 AI 스마트웨어
- 체온·심박수·감정 상태에 따라 색상·질감·온도가 자동 조절되는 옷
- 스마트 패브릭: 온도·습도·생체신호를 감지하는 센서 내장
- AI 제어 시스템: 신호 분석 후 색상·패턴·온도 실시간 변화
- 에너지 효율적 소재: 전력 소모 최소화, 친환경 나노섬유 사용

PROMPT

- 미래형 태양광 나무
 - 기존 태양광 패널은 직사각형 평판 구조로, 미관적으로 도시 환경과 어울리지 않음. 이를 "나무 형태의 구조물"로 바꿔, 각 잎은 곡면형 패널로, 밝은 연두색으로, 줄기 부분은 얇은 갈색부분의 둥근 패널로 만들어줘
- 뉴럴 인터페이스 렌즈
 - 2040년 이후의 렌즈는 뇌파와 시각, 청각, 근육 신호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사용자의 생각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생각 기반 컴퓨팅'이 구현된다. 사용자가 '문서 열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뇌파를 통해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고 즉시 가상 화면이 생성된다. 손을 움직일 필요조차 없이 생각만으로 코딩, 디자인,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 미래형 반응형 의복
 - 의복은 스마트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있고, 체온·심박수·감정 상태에 따라 색상과 질감이 미세하게 변화함. 추울 때는 따뜻한 오렌지빛, 더울 때는 푸른색 계열로 바뀌며, 신체의 움직임에 맞춰 부드럽게 늘어남. 전반적인 디자인은 미래적인 세련미와 일상복 같은 자연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 효율적 소재와 AI 섬유 제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음.
-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영화
 -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과 아이디어를 담은 '프롬프트(명령어)'가 가장 중요한 연출 도구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만 촬영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배경과 의상, 특수효과를 생성형 AI가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프로덕션' 방식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당 번 스튜디오에서 연기한 배우는 AI를 통해 순식간에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한복판에 서게 되거나, 미지의 외계 행성을 탐험하게 됩니다. 제작 과정의 물리적, 경제적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창작의 자유는 무한히 확장됩니다.

느낌점

- 김도윤

미래형 기술들을 상상해 보고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실현된다면 현재와는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미점들을 가진 기술들과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들이 우리의 미래사회를 크게 바꾸어 줄 것이라고 느꼈다. 앞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AI 기술과 더불어 미래형 기술들은 우리들의 일상에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안에서 나는 사회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 박정은

미래형 기술들이 단순한 기계 발전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태양광 나무처럼 자연과 공존하며 에너지를 창출하는 발상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뉴럴 인터페이스 렌즈는 인간의 사고와 기술이 완전히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 기대가 되었다. AI가 예술과 창작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습은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자유를 상징했다. 결국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연과 감정을 잇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 배선웅

활동을 통해, 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감각과 감정, 그리고 자연의 질서 속으로 스며드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활동은 모두 "기술의 인간화"와 "자연의 기술화"라는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데,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감각하고 공감하며, 인간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기술의 미래를 그려준다. 이것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술과 감성을 함께 품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 최준혁

지금도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보면서 확실히 인공지능의 발전이 빨라서 상상했던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조원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미래에는 더 환경친화적이고 경량화된 기기들이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 피드백 시간에 이런 미래에 나올 기술에는 사람들의 수요와 미덕을 생각해마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나중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볼 때 어떤 기준을 더하여 생각하면 좋을 지 알게 되었다. 나의 아이디어도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